

경영지원본부 여직원 회식자리다. 20여명 남짓 모였다. 임신한 직원을 뺀 나머지가 다 모인 듯 했다. 인재경영팀 팀장님이 주선해서 모인 이 자리는 입사이래 처음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방만경영 퇴치선언으로 인한 인력 감소에 대한 압박, 이에 반박하며 대응하는 노조에 대한 요구 등으로 여러 곳에서 두드러 맞고 있는 인재경영 팀장님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공유하고 해소할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추측이다. 공공기관 여직원들 대다수가 그러하듯 술자리가 오래되는 걸 그리 바라지는 않았지만 처음 모인 여직원만의 자리이기에 수다를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업무강도가 크지도 않고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의 사람이 모인만큼 온순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의 대화는 지루하리만큼 착했지만, 오랜만의 이런 모임이라 수다를 한참 한 뒤에는 좀 시원했다고 할까. 자리를 돌며 친분을 쌓아가던 권팀장님이 우리 자리로 왔다. 다른 팀장님들 칭찬이다. 물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20대도 아니고 무작정 사람을 저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아니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사회생활 하는데 적당한 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리 뭐 나쁘지 않지 생각하고 말았다. 몇 안되는 여자 팀장님 중에 한 명이다. 게다가 기관의 중요한 팀 중에 하나인 인재경영팀을 꿰차고 있는만큼 실력이 있어보인다. 내가 본 권팀장은 다부지고 바지런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기관내 여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술자리도 자주 참여하고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으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을 보러가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닳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상을 모르지만 인정받을 부분이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보직자 비율은 사실 적다.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평가받기에는 사회적 관념의 잔재가 많다. 바뀌고는 있지만 오히려 여성 보직자 비율을 의무적으로 늘이겠다는 듯한 표현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성 보직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자리를 맡기에 실력이 있다. 공공기관이 이정도인데 사기업은 안봐도 알 것 같다. 안친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연예인과 드라마, 간혹가다 결혼한 사람들의 신혼생활을 좀 들었다. 정보나 흥미를 끝만한 새로운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가끔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나 이 들었나보다. 소소한 모임도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보니... 인생살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며 되돌아본다.

인간과 기억의 아카이브

Human & Memory Archives